

상소문의 서술 전략과 논증적 글쓰기에 있어서의 활용 방안 모색*

김기림**

<차례>

1. 들어가는 말
2. 상소문의 서술전략들
3. 상소문의 서술 전략을 활용한 논증적 글쓰기 활용 방안
4. 결론

<국문초록>

논증은 어떤 문제에 대해 주장을 세우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일이고 그 목적인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에 있다. 논증은 말과 글로써 이루어지는 상호대화적 의사소통이다. 따라서 논증적 글쓰기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 소양이다.

현재 대학 교양 교육은 논증적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논증은 구체적인 상황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므로 텍스트 안팎에서 논증 효과에 기여하는 요소를 파악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상소문은 논증적 글쓰기 교육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텍스트이다. 신분상, 권력상 열등한 위치에 있는 신하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에게 올린 글이었으므로 치밀한 구성 전략 및 표현 전략이 필요했다. 본 논문에서는 상소문의 서술 전략을 살피고 그것을 논증적 글쓰기 수업에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상소문에서는 독자인 왕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상화하는 전략이 구사되었다. 이는 상소문에 있는 주장들을 왕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상소하는

* 이 논문은 2015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조교수

자의 이미지는 겸손함과 객관적 판단자로서 나타난다. 이는 상소문의 주장이 공공성(公共性)을 띠고 있음을 입증하는 장치이다. 그리하여 왕이 그 주장들을 수용하도록 한다.

당시의 통념을 활용하여 설득력을 강화하기도 한다. 특히 유교적 성현의 언행, 유교 경전 내용이 지닌 권위를 논증의 효과를 높이는 데에 이용한다. 여기에 실제 예시, 사례로 근거로 삼아 주장의 설득력을 지니는 논증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소문의 논증 전략들은 현재 일상에서 쓰이는 논증적 글들-제안서, 자기소개서, 칼럼, 시사논평문 등-에서 활용될 수 있다. 자기소개서에서는 소개받은 상대방의 이미지-기업이미지-를 서술하고 이에 맞게 소개하는 이의 이미지를 그려내도록 한다. 현재의 통념이나 일반적 인식들을 조사, 그것을 칼럼, 논평문에 적절하게 넣는 방안도 있다. 또한 체험, 견문한 것을 서사화하여 사례로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정감에 호소하여 논증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술 전략을 익히기 위해 상소문을 중심으로 한 텍스트 내·외적으로 걸쳐 있는 논증적 요소들을 분석하는 읽기 과정은 필수적이다.

논증, 상소문, 논증적 글쓰기, 최만리, 김시준, 과부재가, 훈민정음 창제, 통념

1. 들어가는 말

논증은 어떤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 및 주장을 세우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주장의 타당성을 확립해가는 행위이다. 논증의 목적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일도록 하는 데에 있다.

논증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추론과 비판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합리적 생각을 갖게 되고 이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근간이 된다.¹⁾ 이런 면에서 논증은 인간의 일상적 삶에서 항상 수행되는 행

1) 조셉 윌리엄스·그레고리 콜럼, 윤영삼 역, 『논증의 탄생』, 홍문관, 2007, 30쪽.

위라고 할 수 있다. 논증은 대화 즉 ‘말하기’로써 수행하기도 하지만 ‘글쓰기’를 통해 이루어질 때도 있다. 그러므로 논증적 글쓰기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 소양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현재 대학 글쓰기 교육에 있어서도 논증적 글쓰기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²⁾ 논증적 글쓰기 수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거나³⁾ 논증을 위한 사고력 증진을 강조면서 비판적 텍스트 읽기를 중시하기도 한다.⁴⁾ 그런데 비판적 읽기는 대체로 논증 글의 논증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⁵⁾

논증 행위는 어떤 상황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의사소통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텍스트 내의 논증 구조 파악도 중요하지만 텍스트 안팎에서 논증 효과를 이끌어내는 요소를 파악하는 일도 중요하다. 텍스트 안에서 어떤 요소들이 논증 효과를 이끌어내는가, 텍스트 바

2) 박정하, 「학술적 글쓰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성균관대 <학술적 글쓰기> 사례를 중심으로-」, 『사고와표현』제5집2호, 2012.

김영건, 「글쓰기와 논증」, 『시학과 언어학』16호, 시학과언어학회, 2009.

최상민, 「논증적 글쓰기 교육과 평가:연극적 방법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32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07.

3) 최상민(2007), 위의 논문.

홍병선, 「글쓰기 교육의 대안적 모델로서의 ‘논증적 글쓰기」, 『철학논총』53, 새한철학회, 2008.

고정은, 「논증적 글쓰기 방안 연구-읽기, 쓰기 통합을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10, 교육과학연구소, 2008.

김영희, 「서사 논증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 『작문연구』19집, 작문연구회, 2013.

오현희, 「텍스트의 논리적 분석을 통한 설득적인 글쓰기 방안」, 『어문교육』45집, 2012.

4) 박정하(2012), 위의 논문.

5) 이운빈은 이에 대해 ‘글쓰기 교육이 텍스트에 나타난 논증도식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했다.

이운빈, 「대학생 필자의 논증텍스트 수정 양상 연구」, 『국어교육』148, 국어교육학회, 2015.

같은 실제 논증의 장(場)에서 어떤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논증적 효과에 기여하는가 등의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도 있다. 논증이 행해지는 상황적 맥락도 논증 전략이나 효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논증적 글쓰기는 텍스트 내적 서술과 외적 맥락을 동시에 고려해야한다. 교육 또한 그런 측면을 살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⁶⁾

이런 점에서 상소문은 주장을 세우고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 주장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논증적 글쓰기 교육에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텍스트이다. 상소문은 신분 제도가 엄격했던 시대에 그 신분상 권력상 최정점에 있는 사람-왕-을 향해 주장이나 견해를 펼치는 글이다. 신분이 낮은 이가 높은 이에게, 권력상 열등한 이가 우월한 이에게 주장을 펼치는 글이다. 그 만큼 위험부담이 큰 글이었으므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치밀한 서술 및 표현 전략 구상해야⁷⁾ 했던 글이었다. 따라서 상소문의 서술 전략은 현 시점에서 행해지는 논증적 글쓰기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소문의 서술 전략을 살피고 그것을 논증적 글쓰기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상소문의 서술전략들

상소문은 신하가 왕에게 올리는 글의 일종이다. 시사적이고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 및 주장을 세우고 왕으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

6) 박정하는 ‘논증적 글쓰기는 context를 기반으로 한 text 구성 작업이며 독자와 상황에 대한 이해는 성공적 글쓰기의 필수적이다.’고 하였다. 박정하(2012), 위의 논문, 12쪽.

7) 염은열, 「상소문의 글쓰기 전략 연구-간타위소(諫打圍疏)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3, 국어교육연구회, 1996, 78쪽.

이거나 긍정하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목적성이 강한 만큼 명쾌한 논의와 적합한 예증이 필요하다.⁸⁾ 상소 행위는 신하가 왕에게 의견을 올리고 왕의 대응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대화적 행위이며, 상소문은 문어적 차원의 의사소통으로서 일종의 발화 장르라고 할 수 있다.⁹⁾ 특히 현안을 바탕으로 신하가 말을 꺼낸다는 점에서 상소는 의도적인 발화행위라고 할 수 있다.

상소가 행해지는 장(場)은 여타의 논증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과 다르다. 우선 상소는 권력상 수직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신하가 정치적 현안을 다루면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을 비판하고 왕에게 건의하는 일이었으므로 위험 부담이 상존했다. 또 상소는 당시 사회,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들을 다룬다. 그 사안들은 왕 자신이나 국가의 안위(安危) 등과 연계된 것들이 많았다. 필연적으로 왕과 관계될 수밖에 없었고 대개 왕이 결정에 따라 해결되는 일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상소문은 왕을 향한 의도적인 논증 행위를 문어적 차원에서 수행하는 글이다. 상소문 자체의 텍스트 내적 논리구조나 서술 방식, 표현 방식, 상소자와 왕과의 현실적 관계, 왕을 제외한 부차적 독자-신하들과의 관계까지 세밀하게 따져야한다. 상소문은 그만큼 고도의 정치적 고려가 뒤따라므로 치밀한 서술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상소문의 서술 전략은 동의를 얻어내려는 목적을 가진 논증적 글 작성에 있어서 유용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상소문의 서술 전략을 살피고 그 서술전략을 논증적 글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대상으로 삼은 글은 최만리가 세종에게 올린 <훈민정음에 관련한 상소문>과¹⁰⁾ 숙종 때

8) 신두환, 「상소문의 문예미학 탐색」, 『한국한문학회연구』33집, 한국한문학회, 2004, 248쪽.

9) 최인자, 「조선시대 상소문에 나타난 설득방식과 표현에 관한 연구-〈간폐비소〉와 〈간타위소〉를 중심으로-」, 『선청어문』24집, 107쪽.

김시준(金時儁)이¹¹⁾ 쓴 <과부 개가를 허락하기를 청하는 상소문(請許改嫁疏)> 2편이다.

이 2편은 당시 공적으로 언급하기에 민감한 사안을 다루었다. 세종은 훈민정음 만드는 일을 주도했고 현실에 적용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그러므로 훈민정음에 관련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공적인 담론으로 만드는 일은 무척 부담스런 일이었다. 과부 개가 문제는 재혼한 여성이 낳은 자식을 동.서반직에 진출하지 못하게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음으로써 생겨났다.¹²⁾ 법적 규제 대상은 사대부 계층 여성들로만 한정하였다. 그러나 자식의 벼슬길을 망치지 않으려는 모정 때문에 여성들의 재혼이 줄어가고 ‘과부 재혼 불가’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재혼 여성은 실절(失節)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다보니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여성들은 평생 수절을 하면서 자식 낳을 기회조차 빼앗기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여성의 정절에 대한 인식이 강고했던 시대여서 여성의 재혼을 공적인 담론장으로 끌어내기는 어려웠다.

이와 같이 2편의 상소문이 다른 사안들이 모두 공적 담론화 하기에는

10) 이 상소는 ‘훈민정음 창제’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 훈민정음을 이두 대신 현실에 적용하는 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 등의 논의가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훈민정음에 관련한 상소문>으로 부르고자 한다.

11) 김시준, 1658년(효종 9)에 태어나 1733년(영조 9)에 죽었다. 자는 택삼(宅三), 호는 수서(水西)이다. 아버지는 김득형(金得亨)이고 어머니는 안동권씨(安東權氏)이다. 아우는 김동준(金東儁), 김후준(金後儁), 김우준(金宇儁) 등이 동생이다. 1687년(숙종 13)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은일(隱逸)의 삶을 살았다. 문집으로는 『수서문집(水西文集)』이 전한다.

12) 『경국대전』<형전>에는 ‘실행한 부녀의 소생이나 개가한 여자의 소생은 무반과 무반 모두에 서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국대전』<예전>에는 ‘실행한 부녀의 자식과 서얼 자손은 과거 응시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재가녀의 자손을 금고(禁錮)시키게 되어 재가녀 자손의 관직 진출은 제한되었다. 이숙인, 『정절의 역사』, 푸른역사, 2014.

위험부담이 크고 파장이 큰 것들이었다. 상소자는 상황 맥락을 주시하면서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텍스트 내적 서술 전략을 치밀하게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현재 논증적 글을 쓰는 데에 유용한 서술 전략을 배울 수 있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 두 편의 상소문을 중심으로 서술 전략을 살피고자 한다.

1) 독자에 대한 예상과 텍스트 안에서의 독자 이미지 구축

상소는 신하가 왕에게 글을 써 바치는 행위이다. 독자는 왕이며 필자와 독자와의 관계는 직접적이다.¹³⁾ 상소자는 왕이 어떤 청자-독자인지 그 이미지를 상정, 상소 내용에 대한 왕의 대응 태도를 고려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독자인 왕의 태도에 따라 상소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나 동의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소자는 상소문 작성에 앞서 왕이 지닌 청자-독자로서의 여러 속성, 성향 등을 활성화하는 과정을 거치고¹⁴⁾ 이를 상소문 안에서 언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① 신들이 엿드려서 보니, 언문을 제작하신 것이 지극히 신묘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를 운용하심이 천고에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신들의 구구한 좁은 소견으로 볼 때 오히려 의심되는 것이 있어 감히 간곡하게 펴서 삼가 다음과 같이 소를 올립니다. 엿드려 바랍옵건대 성재(聖裁)해주시시오.¹⁵⁾

② 이번 청주 초수리에 거동하시면서 흉년이 들었음을 특별히 생각하시

13) 상소문은 당시 사회 정치적 현안에 대해 쓴 글이라는 점에서 왕뿐만 아니라 그 현안과 관련한 사람들도 청자-독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상소가 왕에게 건네지는 글이라는 점에서 왕은 직접적이고 일차적 청자-독자이다.

14) 루스 아모시, 장인봉 역, 『담화 속의 논증』, 동문선, 2003, 59쪽.

15) 『世宗實錄』 26年 2月 20日, ‘臣等伏觀諺文制作, 至爲神妙, 創物運智, 復出千古, 然以臣等區區管見, 尙有可疑者, 敢布危懇, 謹疏于後, 伏惟聖裁.’

어 호종과 관련되는 일은 모두 간략하게 줄이시어 전일에 비해 열 중에 여덟이나 아홉 가지는 줄어들었습니다.¹⁶⁾

③ 삼가 생각해보니, 주상전하께서 왕위에 오르신 지 42년이 되었습니다. 그 교화는 널리 퍼졌고 은택이 두루 흘러가 동방 수천 리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이 모두 백성을 살리시려는 뜻이 문왕의 교화와 거의 비슷한 데에 이르렀습니다.¹⁷⁾

④ 전하는 성스러움이 백왕보다 뛰어나고 덕은 못 생명들을 흠뻑 적시었으며 여러 대 동안 할 겨를이 없었던 법전도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한 가지 일만은 오히려 더 막는 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¹⁸⁾

①②는 최만리의 상소, ③④는 김시준의 상소문이다. 상소문의 독자는 세종과 숙종이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를 주도했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를 강력히 원했다. 상소는 이런 상황에서 행해졌다. 세종은 즉유기, 해시계 등 일상 삶과 관련된 도구들을 만들어냈고 각종 언해 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세종에 대한 객관적 사실 가운데 최만리는 훈민정음 창제 행적에 초점을 맞추면서 ‘언문 제작’은 신묘한 일이고 천고의 뛰어난 지혜 운용 능력이 바탕이 되었음을 서술하였다. 이는 독자를 ‘지혜 운용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서술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논의 내용에 대해 좀더 너그럽게 생각하기를 유도하고 있다. 뛰어난 지혜 운용력으로써 자신들이

16) 『世宗實錄』 26年 2月 20日, ‘且今淸州椒水之幸, 特慮年歎, 屢從諸事, 務從簡約, 比之前日, 十減八九.’

17) 김시준, 『水西文集』 권2, <請許改嫁疎>, ‘恭惟我主上殿下 臨御四十二年 薰腴廣被 惠澤旁流 環東土數千里 欣欣然 皆有生意 庶幾文王之化 可以甄陶而致之.’

18) 김시준, 『水西文集』 권2, <請許改嫁疎>, ‘殿下聖出百王 德洽群生 累朝未遑之典 次第修舉 而惟此一事 尚今壅遏.’

언급한 ‘의심스런 것’들을 잘 살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드러낸 것이다. 독자인 세종은 그에 따라야 할 책무를 지게 된다. 또한 ②에서는 초수리에 거동하는 일이 급하지 않아 사무를 간소화했던 일에 대해 언급했다. 세종이 시무의 완급에 따라 일처리를 적절히 했음을 환기하였다. 이는 훈민정음 현실 적용 문제와 연계된다. 즉 ‘세종은 시무의 완급과 적용에 대해 출중한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언문 창제나 언문의 현실에 적용하는 일은 시급하지 않다. 그러므로 언문의 현실 적용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보여준다. 언문의 현실 적용을 세종의 판단력 우열 여부와 연계하고 세종의 판단력이 뛰어나다고 서술함으로써 상소의 내용에 동의하거나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③④는 숙종에게 바친 상소문이다. 김시준은 주나라 문왕의 정치적 교화가 뛰어났다는 사실로 시작하고 뒤이어 ③을 서술했다. 숙종이 치세한 42년 동안의 치적이 뛰어나 문왕의 교화에 거의 가깝다고 추켜 세웠다. 주나라 문왕은 유교 문화권에서 최고의 치자(治者)들에 속한다. 효를 행하고 도덕 윤리가 무너졌던 이남(二南)지역을 순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김시준은 숙종을 문왕에 비견하여 사적으로, 공적으로 훌륭한이라고 했다. 문왕은 벌보다는 순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지극했기 때문이었다. 숙종도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생의(生意)’ 갖고 있음을 환기했다. 이러한 생의(生意)는 죽음과 같은 수절의 삶으로부터 청상과부들을 구해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든다. 숙종이 정책을 통해 생의(生意)를 드러낼 수 있는 인물로 서술했다. ④는 숙종의 실제 치적을 언급한다. 숙종은 세태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법전을 여러 차례 편찬했다.¹⁹⁾ 법 개정을 통해 백성들의 삶은 더 나아졌고 그것으로써 모든 생명들이 은택을 입게 되었다고 서술했다. 그 은택이 과부들에게도 미치

19) 『受教輯錄』(숙종 24 : 1698), 『典錄通』(숙종 34:1708) 등의 법전편찬을 시행하였다.

도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같이 상소문은 청자·독자인 왕의 이미지를 텍스트 안에서 구축하고 있다. 이는 왕에 대한 단순한 예우 차원의 칭송으로만 볼 수 없다. 왕이 상소문 내용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즉 지혜의 운용이 뛰어나고 시무의 완급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 있으므로 ‘언문 시행’ 정책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리라는 기대를 은근히 건넬으로써 세종으로 하여금 그 일을 늦추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또 백성들을 살리려는 뜻이 지극하므로 과부들의 삶에도 생명을 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건넬으로써 과부 수절과 관련한 법령을 고치도록 유도한다. 청자·독자의 상황이나 속성을 서술함으로써 상소자 주장에 동의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서술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2) 필자 이미지 점검과 텍스트 안에서의 필자 이미지 구축

상소문은 왕을 향해 주장을 펼치고 동의를 얻어내는 글이므로 상소자의 이미지도 중요하다. 상소자가 그 문제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가, 그 문제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상소 행위 및 내용의 타당성이나 상소자의 진정성과 관계되며 궁극적으로 상소 내용에 대한 청자·독자의 동의 가능성, 동의 정도와도 관계되기 때문이다. 이에 상소자의 현실적 위상이나 상소문 안에서의 이미지도 상소의 논증적 효과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상소자는 자신의 현실적 위치 및 상소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적절하게 드러내야 한다. 현실적이며 사회적 위상은 어떤지, 명성은 어떠한지, 왕이 상소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점검하고 상소문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에 대해 고려하여 서술 전략을 구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① 신의 집안 같은 경우, 시공복(總功服)을 입을 정도의 친척들이 많지 않으나 다행히 원한 품은 여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관계되는 정이 있어 금법을 없애자고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쌓인 원한이 무성한 것을 목격하니 진실로 심히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²⁰⁾

② 지금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지만 마음 속으로는 측은하게 여기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감히 무릅쓰고 말하는 것이니 사람들은 필시 손가락질하며 미친 소리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신은 위로는 나라의 명맥을 위해서, 아래로는 사람들의 쌓인 원한을 위해 보잘 것 없는 걱정과 충심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웃음과 조롱을 피하지 않고 망녕되어 어지럽혔다고 죄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또한 그것을 달게 여길 것입니다.²¹⁾

③ 신 등이 모두 서투르고 보잘 것 없는 문묵(文墨)의 재주를 가지고 죄를 기다리며 곁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마음 속에 품은 생각이 있으면 감히 잡자고 있을 수 없으므로 삼가 마음 속 생각을 정리하여 전하의 밝으심을 더럽혔습니다.²²⁾

①②는 김시준의 상소문이다. 김시준은 자신이 과부 재가 허가를 거론하는 것이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임을 밝힌다. 시공복이란 상례에 있어서 시복과 공복을 입는 것으로²³⁾ 자신의 직계 가족 외에 아주 가까운

20) 김시준, 『水西文集』권2, <請許改嫁疎>, ‘如臣宗黨鮮少媿功之親 幸無冤女 非有私係之情 願得除禁之舉也 目擊冤鬱 誠甚惻怛.’

21) 김시준, 『水西文集』권2, <請許改嫁疎>, ‘臣固知今世之諱言此事, 而中心憫惻, 乃敢冒昧陳籲, 人必指爲狂言. 然臣上爲國脈, 下爲人冤, 區區愚忠, 不避譏嘲, 雖以妄瀾而獲罪, 亦所甘心矣.’

22) 『世宗實錄』26年 2月 20日, ‘臣等俱以文墨末技, 待罪待從, 心有所懷, 不敢含默, 謹罄肺腑, 仰瀆聖聰’

23) 공복(功服)은 대공복과 소공복으로 나뉜다. 대공복은 9개월 동안 상복을 입는 것으로 대체로 중형제 상을 당했을 때 입는다. 소공복은 5개월로 재종형제나 외조부모의

관계에 있는 친족들임을 의미한다. 김시준은 ‘시공복 입을 만한 가까운 친족 중 수절 과부의 원한을 가진 이가 없다’고 함으로써 과부 재가를 청하는 일이 자신의 개인적 사정과는 무관함을 밝힌다. 개인적 일로써 나라의 법을 개정하고자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예측했기 때문이다. 즉 독자인 왕이 ‘상소자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까지 고려하면서 자신은 개가 허락 문제와 무관한 것으로 자신의 위상을 텍스트 안에서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사로운 정 때문에 국가의 큰 법을 고치고자 하는 사심(私心)이 없는 사람으로 서술했다. 또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원한 쌓인 과부들의 불쌍한 광경을 목격했고 그것을 풀어주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법 개정을 제안했다고 하였다. 자신을 철저하게 과부의 삶에 대한 관찰자로서 서술한다. 이는 그가 ‘위로는 나라의 명맥과 아래로는 원한 쌓인 사람들을 위한다.’는 말이 타당하다고 여기게 만든다. 그리하여 상소의 타당성, 정당성, 진솔성을 신뢰하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왕으로부터 얻을 죄 등에 상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상소자로서의 진지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③은 최만리가 상소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서술한 부분이다. 상소 첫 머리에서 ‘보잘 것 없는 구구한 소견’을 가진 사람들로 서술하고, 말미에서는 ‘서투르고 보잘 것 없는 문묵의 재주를 가진 자’라고 하여 상소하는 자신들을 왕에 비해 열등한 사람으로 표현했다. 당시 상소를 올렸던 이들은 세종과 함께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최만리도 이 상소를 올린 세종 26년까지 3년 9개월 동안 집현전에 근무하였다. 훈민정음 창제 작업이 집현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을 감안할 때 최만리를 비롯한 상소자들도 훈민정음 제정과 시행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그 만큼 능력도 있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재주와 능력을 ‘보잘 것 없다.’고 했다. 현실

상에 입는다.

속 자신들의 모습을 변형시킴으로써 겸손 어법을 구사하면서 ‘보잘 것 없음’으로 인한 잘못을 너그럽게 여겨 줄 여지를 남겨 놓았다. 이는 훈민정음을 현실에서 시행하는 일을 반대하는 주장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로 인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 서술 전략이다.

또한 마음 속 생각을 표현하지 않음은 시종하는 신하로서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을 드러냈음으로 책무를 완수한 신하로 표현했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딜레마인 셈이다. 신하로서 책무를 다한 신하를 꾸짖는 일은 왕답지 못한 일로 여겨질 수 있고, 상소 내용대로 따르자면 자신의 정책이 저지되기 때문이다. 최만리는 왕으로 하여금 왕답지 못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면서 자신들의 상소 내용에 동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소자는 현실 속의 자신의 모습을 상소문에 그대로 투영하거나 다르게 변형함으로써 왕이 상소 행위를 타당하고 정당하게 여기도록 하고 상소 내용에 동의, 반응하도록 하는 서술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3) 통념 및 통념적 요소에 기반한 서술

사전적 의미에 의하면 통념은 사회에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생각을 말한다. 그 시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지식이나 믿음이며 그 구성원들 주위에서 인정되고 말해지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할 필요 없이 자명하게 받아들여진다.²⁴⁾ 통념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거나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도움을 준다.

그만큼 통념은 논증 과정에서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4) 루스 아모시, 앞의 책, 133쪽.

① 우리 조선은 조종 때부터 지성스럽게 대국을 섬겨 한결같이 중화의 제도를 따랐습니다. 지금 문자를 같이하고 법도를 같이 하는 때에 언문을 창작하셨다니 보고 듣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혹 말하기를 “언문은 모두 옛 글자이고 새로운 글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글자의 형태가 비록 옛 전자(篆字)를 모방했다고 하나 음을 써서 글자를 합하는 것은 모두 옛날과 전혀 반대되니 실로 의거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 혹시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국을 섬기고 중화를 사모하는 데에 부끄러움이 어찌 없겠습니까. 예부터 구주(九州) 안의 풍토는 각각 달랐으나 각 지역의 말이 다르다고 하여 문자를 따로 만든 것은 오직 몽고, 서하, 여진, 일본 등의 오랑개 부류들이었습니다. 각각 문자가 있었으나 그들이 모두 이적(夷狄)들의 일일뿐입니다. 그러니 족히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전(傳)에 말하기를 ‘화하를 써서 이적을 변화시킨다 했고, 이적에 의해 변화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²⁵⁾

② 성종 임금 16년 을사년에 재가한 여자가 낳은 자식은 동반직과 서반직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여 법으로 삼아 나라 법전에 실었다고 합니다. …(중략)…그런데 이 해에 큰 가뭄과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깊이 쌓이고 상인 원통함이 먼저 하늘을 움직여서 이와 같이 경계하는 일이 생긴 듯합니다. …(중략)…옛날 동해에 살던 효부가 원망하자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 명의 여자가 원한을 가져도 오히려 이 같은 재난에 이르는데 하물며 지금부터 성종 임금 을사년까지는 232년이나 됩니다. …(중략)…옛날 세종대왕께서 가뭄이 들자 나이가 많은 장년의 궁녀들을 궁 밖으로 나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중략)…음기가 쌓여서 하늘

25) 『世宗實錄』 26年 2月 20日, ‘我朝自祖宗以來, 至誠事天, 一遵華制, 今當同文同軌之時, 創作諺文, 有駭觀聽。 儻曰諺文皆本古字, 非新字也, 則字形雖倣古之篆文, 用音合字, 盡反於古, 實無所據。 若流中國, 或有非議之者, 豈不有愧於事大慕華, 一, 自古九州之內, 風土雖異, 未有因方言而別爲文字者, 唯蒙古、西夏、女眞、日本、西蕃之類, 各有其字, 是皆夷狄事耳, 無足道者。 《傳》曰: “用夏變夷, 未聞變於夷者也。”

의 조화가 어그러질까 염려하여 법을 형편에 따라 시행하여 각 집안에 즐거움이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중략)…(지금은)원한을 풀어주고 덕을 널리 베푸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온 나라 규방의 원한이 날로 더해지고 무성하게 만듭니다.…(중략)…마음 속에 있는 원한이 쌓여 재해를 불러들이지 않음이 없어 기근과 흉년이 해마다 생기고 원한과 저주가 길에 쌓여 백성들이 그 재앙을 고스란히 받고 나라가 그 폐해를 받습니다.²⁶⁾

①에서는 ‘대국을 섬기고 중화 문명을 따른다’는 당시 일반 인식을 이용했다.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당시 명과 조선은 상하관계라는 인식이 통용되었다.²⁷⁾ 명은 또한 중화 문명을 가진 나라로 인식되었다. 최만리는 이 통념을 전제로 삼아 명의 문자를 두고 또 다른 문자를 만들어 쓰는 일은 오랑캐나 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즉 ‘다른 문자를 만들어 쓰는 일은 오랑캐가 하는 일이다→ 언문을 따로 만들어 쓰는 일은 오랑캐와 같은 행위이다→그러므로 언문을 만들어 쓰는 일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예로 일본, 몽고, 여진 등을 거론했다. 이들은 당시 오랑캐라고 여겨졌다. 뒤이어 최만리는 ‘화하를 써서 이적을 변화시켰다는 말을 들었어도 이적에 의해 변화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서술한다. 이는 『맹자』에 나온 말을 인용한 것이다.²⁸⁾ 맹자의 말은

26) 김시준, 『水西文集』권2, <請許改嫁疏>, ‘臣聞成廟十六年乙巳, 始令再嫁女所生, 勿齒東西班職, 定爲律令, 書之國典. 其所以激礪風俗者, 非不至矣. 而是年大旱大饑, 意者幽鬱之冤, 先有感於皇天, 而有此警矣. …(중략)…昔東海孝婦死而枯旱三年 夫一女有冤 尙且致災 而況自今日上距成廟乙巳 凡二百三十有二年…(중략)…臣聞昔我世宗大王 因天旱乾 命出年壯宮女使之還家…(중략)…尙慮夫陰氣鬱而天和乖至使使令之便 亦有宜家之樂…(중략)…解冤布德 惟此時爲急 乃反使日國閭怨日以拂鬱 …(중략)…幽冤所積 無災不召 飢荒連歲 怨詛載路 民受其殃 國受其病.’

27) 이원명, 「여말선초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과 대명외교 추이-최만리 ‘갑자상소’의 배경과 성격에 대한 이해-」, 『동북아문화연구』27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1, 87쪽.

당시 통념적 성격을 지녔다. 이를 이용해 ‘언문’을 만들고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일은 곧 ‘중화에서 오랑캐로 변하는 것’, 또는 ‘중화가 오랑캐에 의해 변화당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던지시 던진다.

‘대국을 섬기고 중화 문명을 따른다’는 통념이 논증적 힘을 가졌음은 세종의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세종은 ‘대국을 섬겨야 한다.’라는 데 대해서는 전혀 반박하지 않았고, 언문의 글자가 ‘전문(篆文)을 닮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자의 음’이 다르므로 조정해야한다고 했다. 이는 ‘명에 대한 사대’라는 견해에 수긍한 것이고 ‘언문이 전문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중화 문명을 따른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최만리는 이를 서술 전략으로 활용, 언문을 만들어 시행하는 일을 그만두도록 유도하고 있다.

②에서는 ‘정치를 잘못하면 기상이변이 생긴다.’라는 통념을 이용한다. 기상이변은 예부터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었고 항상 왕의 정치 득실과 관계되어 해석되었다.²⁹⁾ 이는 조선시대 상소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서술 전략이다.³⁰⁾ 그 만큼 정치 득실과 기상이변은 조선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확고한 위치를 점유했던 일반적 인식이었다.

그 가운데 여성의 원한은 기상이변의 주된 원인으로 거론되었다.³¹⁾ 더구나 ‘동해 효부’는 여성의 효행을 담아낸 이야기로서 교화적 차원에서 널리 언급되었던 소재이다. 김시준은 정치 득실과 기상이변에 대한 통념, 여성의 한과 기상이변에 관한 통념을 결합하여 논증을 전개한다. 즉 현실

28) 『맹자(孟子)』 「등문공 상(滕文公上)」, ‘吾聞用夏變夷者 未聞變於夷者也 陳良, 楚產也. 悅周公, 仲尼之道, 北學於中國. 北方之學者, 未能或之先也. 彼所謂豪傑之士也. 子之兄弟事之數十年, 師死而遂倍之’

29) 송혁기, 「災異관련 應旨上疏文의 관습과 수사」, 『동아시아고대학』33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 468쪽.

30) 오인환·이규환, 「상소의 설득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47권3호, 한국언론학회, 2003.

31) 이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늘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속담에서도 알 수 있다.

상황에 맞게 법을 개정하면서도 오직 과부 재가를 막는 법만은 개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과부가 억지로 수절하게 되어 남편과 짝을 이루어 자식을 낳아 기르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성들의 원한이 쌓여 하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결과로 기상이변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과부 재가를 막는 법을 폐지하고 과부가 된 여성들로 하여금 재가하여 인간으로서 생육(生育)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야함을 주장한다.

한편 유교 경전이나 유교의 성현 또는 그들의 말, 유교적인 차원에서 인정되는 어떤 전형(또는 전범)이 되는 것 등도 통념적 성향을 지닌 것으로서 상소문에서 많이 활용되었다. 이것들은 절대적 권위를 갖는 동시에 당시 사람들에게 ‘당연’하고도 ‘올바른 것’으로 인식되었다. 상소문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서술 전략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① 선유가 이르기를 “여러 가지 완호(玩好)는 뜻을 빼앗는다.”고 하였습니다.³²⁾

② 문왕의 교화는 집안에서부터 시작하여 나라로 확대되었고 한수(漢水) 지역에 그 교화가 먼저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한광(漢廣)시에 나오는 ‘놀러다니는 여자’는 단정하고 정일해져 옛날과 같은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었고, 행로(行露)에 나오는 음란한 여자는 예로써 자신을 지키게 되었습니다.(중략)…문왕이 다스릴 때에 어찌 이남(二南)의 여자들로 하여금 과부가 되면 수절하기를 권했겠습니까? 집집마다 절개를 고치기를 금지시켜 억지로 제어하고 구속하여 곧고 신실한 풍조가 생겨났겠습니까? 다만 그 교화가 위에서 이루어지자 아래의 풍속도 아름다워져서 곧고 신실한 여자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중략)…그래서 성인께서도 시경에 써서 보여준 것입니

32) 『世宗實錄』 26年 2月 20日, ‘先儒云, 凡百玩好, 皆奪志.’

다. 무릇 문왕 때 교화가 융성했음은 훗날 천하의 법이 되었습니다. 이남(二南)의 시로써 풍속이 교화된 까닭을 살펴보면 태왕이 기(岐)땅을 다스릴 때에 안으로는 원망하는 여인들이 없었고 밖으로는 흠아비가 없었던 것이 그 바탕이 되었습니다. 원망하는 여인들이 그 마땅한 곳을 얻지 못하여 원한 품은 소리가 들렸다면 어찌 주나라가 융성한 교화를 이루어냈겠습니까.³³⁾

①의 완호탈지(玩好奪志)는 완물상지(玩物喪志)와 상통한다. 소공(召公)이 무왕(武王)을 경계할 때 썼고, 송나라 때 정자(程顥)가 제자인 상채(上蔡)를 꾸짖을 때 사용한 말로서 조선시대에는 격언으로 통용되었다. 이 말에는 소공, 무왕, 정자 등 유교 성현이 등장한다. 유교 문화 속에서 이들은 전범이 되었고 그들의 말은 권위를 가졌다. 최만리는 이 말을 활용하면서 ‘언문’은 육예(六藝)의 한 가지일 뿐 학문의 본질에 속하지 않으므로 언문에 열중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한다. 결국 ‘언문’은 기예일 뿐 중요치 않다는 의미를 드러내는 데에 유교 성현의 말이 지닌 권위에 의거하는 서술 전략을 구사한다.

②는 주나라 문왕의 치세를 거론하면서 논증을 펼친 부분이다. 문왕의 치적 가운데 세상을 교화시켜 한수(漢水)지역의 음란한 풍조를 변화시킨 것을 서술했다. 여성들이 정숙하고 신실한 된 것은 교화의 결과이지 법적으로 강제하고 수절을 억지로 권면하였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는 과부의 재가를 막는 법으로써 여성들을 곧고 신실하게 만드는 일은 강제적

33) 김시준, 『水西文集』권2, <請許改嫁疏>, ‘臣聞, 文王之化, 自家而國, 先及於江漢之間. 而漢廣遊女人不可求, 行露婦人禮以自守. 化行俗美如此之盛然. 文王之政, 豈嘗使二南之爲女子者, 人人而責其守寡, 家家而禁其改節, 勒制拘迫而有是貞信哉? 特其化成於上, 俗美於下, 而有所謂貞信之女, 乃有如漢廣行露之所云者, 自有所不其而然焉. 故聖人取之著之於經以示. 夫文王之化之盛, 而爲天下後世之法, 試以二南之詩, 究其風化之所由, 則太王之治岐而內無怨女, 外無曠夫者, 實爲基矣. 曷嘗聞怨女含冤不得其所, 而做成周之化之隆哉.’

이고 인위적이며 문왕의 치세 방식과 확실히 다름을 강조한 것이다.

공자는 주나라 정치를 이상적으로 여겼고 태왕과 문왕의 치세로 인해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칭송하였다. 조선시대는 유교-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으므로 유교의 성현들은 당연히 전범으로서 인정되었다. 이로써 태왕과 문왕은 이상적인 임금상의 전범이 되어 왕들이 절대적으로 닮고 싶어하는 대상이었다. 김시준은 대표적 전범이었던 문왕과 태왕의 치적을 내세워 전범에 대해 심리적인 개방적 태도와 신뢰감을 유발시켜³⁴⁾ 문왕이 인정(人情)에 따랐듯이 숙종도 이에 따라 과부재가금지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같이 상소문에서는 통념적 요소들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에 동의하도록 하는 서술 전략을 썼다. 이런 통념적 요소들은 유교 문화 속에서 왕보다 상위적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어³⁵⁾ 논증의 힘을 강화하는 주요한 서술 전략에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4) 예시를 활용한 서술

예시는 어떤 사례를 들어 근거로 삼아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다. 이는 과거에 있었던 일, 역사적인 일을 보여줌으로써 주장 또는 이유를 뒷받침한다. 예시는 대체로 상상력을 자극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며³⁶⁾ 어떤 결론을 추리해내는 데에 바탕이 되어 논증적 효과를 내기도 한다.

34) 최인자, 「조선시대 상소문에 나타난 설득방식과 표현에 관한 연구-〈간폐비소〉와 〈간타위소〉를 중심으로-」, 『선청어문』24집, 1996. 117쪽.

35) 최인자, 위의 논문, 117쪽.

36) 루스 아모시, 앞의 책, 195쪽. 그는 페렐만이 예시를 구분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따뜻한 봄날 날짐승은 수컷과 암컷이 서로 따르고 길짐승들은 암놈과 수놈이 서로 짝을 구하여 자식을 낳아 기르고 무리지어 즐거워하지 않는 것들이 없습니다. 이런 때에 슬피우는 소리가 들려 물어보면 “아, 어떤 여자가 나이 채 20이 안 되었는데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겨우 며칠, 몇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고 합니다. 혹은 “나이 겨우 20이 넘었는데 남편은 죽고 자식은 없네요.”라고도 합니다. 혹은 “나이가 14,5세인데 겨우 혼례식만 올려 이름만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른 사람 보기가 부끄러워 소리내어 곡을 하지도 못하고 집안 사람들이 대신 곡을 해준답니다.”라고도 합니다. 신이 아주 작은 마을을 벗어나지 않았는데도 측은한 소리를 듣고 마음에 애달픔이 이와 같을 정도입니다.³⁷⁾

김시준은 상소에서 과부가 된 여성의 모습을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 더구나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말하여 객관적인 전달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사실을 객관적 입장에서 전달한다. 이것들은 실제 현실에서 김시준이 보고 들은 사례에 속한다. 나이가 채 20이 안 된 상태에서 과부가 되었거나 겨우 결혼식만 치르고서 과부가 된 어린 여성들의 사례를 그대로 보고한다. 김시준은 특히 여성들의 나이가 20세가 안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나열하였다. 날짐승과 길짐승조차 암수가 짝을 지어 즐기고 자식을 낳아 양육하는 즐거움을 누리는데 20살도 안 되어 과부가 된 여성들은 그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서술한 것이다. 이는 과부들의 삶에 대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며 상소를 읽는 이로 하여금 ‘불쌍함’, ‘가련함’이라는 감정을 유발하는 데에 기여한

37) 김시준, 『水西文集』 권2, <請許改嫁疏>, ‘臣不暇遠舉 試以所嘗目觀者言之 方春和煦之時 飛者雄雌相隨 走者牝牡相求 莫不有以生育而群群相樂矣 于斯時也 聞有哭之悲者 問之則曰噫 某女年未二十 其夫死而移天纔日月也 或曰其年纔過二十 其夫死而無子也 或曰其年十四五 纔成合卺之禮 而名爲其夫者死 其女羞人 不敢成聲而哭 而其家人爲之哭也 臣不出鄉井之間 惻耳傷心 至於如此.’

다. 과부들의 삶을 성적 본능 차원에서 ‘자식 생육’ 본능 차원으로 바꾸면서 과부들에 대한 ‘측은지정’을 정당화하고 그럼으로써 법보다 인간으로서 측은함을 먼저 생각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과부들로 하여금 자식 생육 본능을 실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3. 상소문의 서술 전략을 활용한 논증적 글쓰기 활용 방안

이상과 같이 상소문의 서술 전략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상소문에서 구사된 서술 전략을 현재 논증적 글쓰기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논증적 글쓰기는 비판적 사고력 기르기와 글을 쓰기 위한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읽기 과정에서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상소문을 활용할 경우 텍스트 읽기와 그것을 활용한 글쓰기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상소문 읽기 과정

논증적 글에 쓰인 논증 구조 및 서술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비판적 글 읽기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 외적 상황 고려하기	1. 독자에 대한 실제적이고 객관적 정보-상소문을 읽을 독자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2. 상소자에 대한 실제적이고 객관적 정보-상소자의 사회적, 정치적 위상 알기
	3. 독자와 상소자의 관계는 어떠한가?
	4. 상소문의 상황적 맥락 알아보기 -상소문에서 다룬 현안은 무엇인가? 그 현안은 당시 어떤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지녔는가?
	5. 상소문에서 다룬 현안에 대해 또 다른 의견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었는가?
	6. 상소문의 또 다른 독자는 누구였는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텍스트 내적 요소 분석하기	1. 상소자는 독자를 어떤 사람으로 형상화하였는가? 독자는 어떤 이미지를 띠고 있는가?
	2.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독자 정보와 상소문에서 나타난 독자 이미지는 같은가? 다른가? 같거나 다르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서술한 목적은 무엇인가?
	3. 상소자는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서술하고 있는가?
	4. 상소자에 대한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와 상소문에서 나타난 상소자의 이미지는 같은가? 다른가? 같거나 다르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서술한 목적은 무엇인가?
	5. 상소문에서 상소자가 주로 쓴 어법, 어투는 무엇인가?
	6. 현안 또는 시사 문제를 상소자는 어떤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가?
	7. 상소문에서 상소자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8. 상소문에서 활용한 예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예시들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9. 상소문에서 활용한 통념적 요소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통념적 요소는 어떤 논증적 효과가 있는가?

2) 상소문의 서술 전략을 활용한 논증 글쓰기 방안

(1) 독자 및 필자에 대한 정보 수집과 이미지 구축하기

논증하는 글은 얼마나 논리적으로 텍스트를 조직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논증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읽는 자와 쓰는 자의 관계에 대해 고려하는 일도 중요하다. 논증의 효과는 독자가 그 주장을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기소개서나 제안서 등은 어떤 의견 및 내용을 서술하여 상대방이 그 것을 받아들여게끔 하려는 의도가 매우 강한 글이다.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글이므로 상대방인 독자의 반응을 예상하면서 서술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논증적 성향이 강한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희망자는 자기소개서를 써야하는 필자 입장이다. 기업은 자기소개서를 통해 인재를 선택한다. 취업희망자와 기업의 관계에서 기업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셈이다. 제안서 작성의 외적 상황도 동일하다. 제안자는

자신의 제안 내용이 수용되기들 희망하며 제안 받는 자들은 선택할 권한을 갖고 있다. 취업희망자나 제안자들은 독자인 기업, 제안 받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편에 있기 때문에 독자 상황을 주시해야만 한다. 독자의 우월적 상황은 상소문이 행해지는 상황과 유사하다. 이런 점에서 자기소개서, 제안서 작성에 상소문의 서술 전략은 유효할 수 있다.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에는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라는 조언이 따른다. 그리고 이를 자기소개서 안에 적절히 서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서술해야할지, 그 기업을 어떻게 서술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상소문의 서술 전략을 활용할 경우 우선 기업의 기업관 및 인재관, 비전 등을 조사, 수집하도록 한다. 이는 독자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하다. 기업의 인재관이나 비전을 서술하는 일은 독자인 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에 해당한다. 상소문에서 왕의 이미지를 만들어내 듯이 기업이 ‘이러이러한 인재를 원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어 취업희망자가 그런 능력을 가진 인재이므로 기업은 선택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화할 수 있다. 또 이러한 기업 이미지 구축은 학생-지원자가 기업에 대해 충분히 관심 있다는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는 지원자인 학생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모으도록 한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나 제안서에서 구축했던 독자-기업 이미지에 대응하는 학생-지원자의 모습을 담긴 정보를 걸러내어 서술하도록 한다. 상소문에서 상소자가 상소 내용을 상소할 수 있는 타당성, 정당성을 확보하였듯이 학생-지원자도 자신이 지원자로서 타당하고 정당하며 글 속에서 논증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상소자가 독자인 왕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춤으로써 왕의 너그러움을 유도하듯이 학생-지원자도 기업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제시하고 기업

으로 하여금 적합한 인재라고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처럼 객관적 관점에서 학생-지원자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다음 그것을 자기소개서에서 기업의 특성에 맞게 서술하는 전략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대체로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작성시 기업 특성과 자신의 능력을 연계하여 서술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 상소문에서 상소자가 사안에 따라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를 살펴 그 방식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2) 예시를 통한 독자의 동의 및 감정적 공감 유발 전략 활용

상소문에서는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예시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감정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 서술 전략을 쓰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개인적 서사의 글이나 감상문 등을 쓰는 데에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서술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동의나 공감은 독자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의 상소문에서 김시준이 과부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여 ‘측은지정’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던 것 같은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서술 전략은 특히 개인적 서사를 바탕으로 하는 자기소개서나 감상문, 칼럼 등을 통해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낼 때 유용하다.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가, 구성원들과 화합하여 이루어냈던 경험들, 남들이 어렵다고 할 때 과감하게 해 냈던 일들을 찾아 내어 서사 방식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이러한 것은 개인의 사례로써 자신의 강점 이를 테면 리더십, 구성원들과의 화합 능력, 도전적인 태도 등을 드러내는 데에 적합하다. 칼럼이나 감상문의 경우에도 실례 제시는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며 그림으로써 주장이나 감상의 내용에 신뢰성을 더해 주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독자의 이성적 판단, 독자의 정서 등에 호소함으로써 공감하도록 만드는 것이다.³⁸⁾ 다만 그 경험담 및

체험담을 논증하는 글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서술해야함을 강조해야 한다. 즉 김시준의 상소문에서 과부들의 생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3) 사회적으로 공인된 통념적 요소의 적극 활용 유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보편적 인식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현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칼럼, 시사 논평문 같은 글에서 독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유효하다 할 것이다.

조선시대는 유교 경전의 내용, 유교적 성현들의 언행은 일종의 통념이었다. 최만리와 김시준은 이를 적절히 활용했다. 칼럼이나 시사 논평을 쓸 때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적 통념이나 통념적 요소인 것들을 생각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것은 글의 주제와 연계하여 서술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통념적 요소를 서술 전략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있음을 상기시켜야 한다. 통념이란 시대나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라 다르며 동시대 및 같은 사회 속에서도 집단의 성향에 따라 통념적 요소로서 인정되는 것들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 통념적 요소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수집한 후 그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논증적 글이 목표로 하는 독자들이 그것을 통념으로 인정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러므로 통념적 요소를 서술 전략으로 쓰기 위해서는 독자의 특성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상기시켜야 한다. 이는 논증 과정에서 통념적 요소가 지닌 특성이기도 하다.

38) 김영희, 「서사 논증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 『작문연구』19집, 작문연구회, 2013, 364쪽.

4. 결론

상소문은 신하가 직접 왕을 향하여 의견과 비판을 제기하는 글이다. 권력의 우열과 신분의 상하 관계 속에서 바치는 글인 만큼 왕의 동의 및 수긍함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서술 전략을 치밀해야 했다. 독자 위치에 있는 왕의 모습이나 왕의 대응을 예상하면서 상소 내용에 동의하고 수용할 만한 독자 상으로 서술함으로써 논증의 효과를 거두는 서술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상소자 자신도 왕의 신하로서, 상소 내용과 관련하여 정당하고 객관적인 태도가 있음을 상소문 안에서 표현해 내야 했다. 또한 예시를 통해 상소를 통한 논증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동시에 왕의 감정을 움직임으로써 제기된 의견을 받아들일도록 하는 방법도 구사하였다.

이러한 서술 전략은 논증적 글쓰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자기소개서, 제안서 등에서는 독자와 필자의 관계를 예상하면서 서술하는 전략이나 예시를 통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칼럼, 시사비평문 등에서는 통념적 요소를 활용하는 전략을 차용함으로써 논증의 효과를 높이는 글쓰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상소문의 서술 전략을 살피고 응용하는 일은 글쓰기 수업에 있어서 고전 및 우리 역사의 자료를 활용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동시에 글의 논증적 효과를 높이는 전략을 익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한계점으로는 상소문이 옛 글이어서 현재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 한문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활하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번역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다.

참고문헌

『세종실록』, 고전번역원DB.

김시준, 『水西文集』, 한국역대문집총서DB, 경인문화사.

루스 아모시, 장인봉 역, 『담화 속의 논증』, 동문선, 2003, 1~351쪽.

조셉 윌리엄스·그레고리 콜럼, 윤영삼 역, 『논증의 탄생』, 홍문관, 2007, 1~536쪽.

이숙인, 『정절의 역사』, 푸른역사, 2014, 1~423쪽.

고정은, 「논증적 글쓰기 방안 연구-읽기·쓰기 통합을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10, 교육과학연구소, 2008, 97~113쪽.

김영건, 「글쓰기와 논증」, 『시학과 언어학』16호, 시학과언어학회, 2009, 29~46쪽.

김영희, 「서사 논증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 『작문연구』19집, 작문연구회, 2013, 354~401쪽.

박정하, 「학술적 글쓰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성균관대 <학술적 글쓰기> 사례를 중심으로-」, 『사고와표현』제5집2호, 2012, 7~39쪽.

송혁기, 「災異관련 應旨上疏文의 관습과 수사」, 『동아시아고대학』33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 465~493쪽.

신두환, 「상소문의 문예미학 탐색」, 『한국한문학회연구』33집, 한국한문학회, 2004, 235~263쪽.

염은열, 「상소문의 글쓰기 전략 연구-간타위소(諫打圍疏)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3, 국어교육연구회, 1996, 77~98쪽.

오인환·이규환, 「상소의 설득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47권3호, 한국언론학회, 2003, 5~37쪽.

오현희, 「텍스트의 논리적 분석을 통한 설득적인 글쓰기 방안」, 『어문학교육』45집, 한국어문교육학회, 2012, 101~117쪽.

이원명, 「여말선초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과 대명외교 추이-최만리 '갑자상소'의 배경과 성격에 대한 이해-」, 『동북아문화연구』27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1, 83~102쪽.

홍병선, 「글쓰기 교육의 대안적 모델로서의 '논증적 글쓰기」, 『철학논총』53, 새한철학회, 2008, 335~356쪽.

이운빈, 「대학생 필자의 논증텍스트 수정 양상 연구」, 『국어교육』148, 국어교육학

회, 2015, 299~335쪽.

최상민, 「논증적 글쓰기 교육과 평가:연극적 방법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32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07, 349~369쪽.

최인자, 「조선시대 상소문에 나타난 설득방식과 표현에 관한 연구-〈간폐비소〉와 〈간타위소〉를 중심으로-」, 『선청어문』24집, 1996, 102~121쪽.

ABSTRACT

Study on the strategies for writing an sangsomoon(上疏文)
and apply it in an article of argument

Kim, Gi-rim

The purpose of this manuscript is considering strategies of sangsomoon (上疏文) writing and search for a way to apply them to an article of argument.

Argument is interactive dialogue. It's purpose is persuading others to adopt demonstrator's idea. People write article of argument so the ability of writing article of argument is necessary for communication.

Sangsomoon(上疏文) has various effective means. That is the article which subject addresses a memorial to the king so he must make a detailed writing strategy to persuade the king as a reader.

The subject as a writer describes the king as a leader who he is intelligent, generous and honorable. This strategy make the king accept the matters Sangsomoon(上疏文) refered. The subject, also, edscribes himself as a objective third-party onlooker, by so doing he persuades the king to accept his ideas.

On the other side the subject makes use a sodially accepted idea and various real-life cases. A common idea is powerful strategy for persuade since people believe, easily agree without careful thought. Various real-lige cases appeal to sentiment so move an people.

These strategies are utilized for writing article of argument. Such as cover letter to apply for companies, proposals, column, current issues review. These strategies in utilized teach students how to write an article of argu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ritically read Sangsomoon(上疏文) in university writing classes.

Key Words sangsomoon(上疏文), strategies of sangsomoon(上疏文) writing, an article of argument. interactive dialogue, reader, writer. university writing classes

논문투고일	: 2016.04.15
심사완료일	: 2016.04.30
게재확정일	: 2016.05.08